

문화수도 꿈꾸는 광주, 문화기반시설 열악

공공도서관·미술관 등 2749곳 중 1013곳 수도권 집중...광주, 미술관 10개 등 61개 그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의 문화기반시설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현(울산 북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2749개의 문화기반시설 중 경기 526개(19.1%), 서울 386개(14.0%), 인천 101개(3.7%)로 전체의 36.8%(1013개)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광주는 61개로 광역시 중 부산 103개, 대구 74개의 뒤를 이었다. 대전은 55개, 울산은 41개였다.

공공도서관 1042개의 지역별 보유 현황은 경기도에 250개(24.0%), 서울 160개(15.4%), 인천 48개(4.6%)로 나타나 전체의 44%가 수도권에 몰려있었으며 대전 24개, 광주 23개, 울산 18개, 세종 5개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미술관은 전국 251개 중 경기 54개, 서울 43개, 인천 5개 등 수도권에서 102개(40.6%)를 차지했으며 광주는 10개, 전남 29개가 설치돼 있다.

박물관도 전국 873개 중 34%(297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광주는 12개, 전남 57개에 그쳤다.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수도를 지향하면서 문화기반시설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내려다 본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상현 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서는 주민들이 다양한 공연이나 전시를 제대로 보기 힘든 만큼 지금부터라도 지방을

위한 각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문화기반시설과 각종 프로그램 확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자연재해 최다 전남...복구액 최고 경남

전남 10년간 6443억 피해...복구비 1조1515억

경남은 4741억 피해에 1조1811억 가져가

최근 10년 동안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전남이었지만, 피해 복구액은 경남이 가장 많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 갑) 의원이 행정안전부 '재해연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08~2017)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금액은 3조 532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복구액은 피해금액의 2.1배에 이르는 7조3000억원을 상회했다.

자연재해 원인별로는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금액이 가장 컸다.

태풍·호우로 인한 피해금액은 각각 1조4988억원, 1조630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46.2%, 42.4%를 차지했다.

이 기간 지역별로는 전남의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10년간 피해금액은 6443억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의 18.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기 5574억원(15.8%) ▲경남 4741억원(13.4%), ▲경북 3562억원(10.1%) 순이었다.

전남지역 피해가 가장 컸던 해는 지난 2012년으로 8월부터 9월까지 14호 태풍 '덴빈'을 시작으로 15호 '볼라벤' 16호 '산바'까지 3개의 태풍이 연속 강타해 4136억1400여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광주는 이 기간 중 자연재해로 인해 218억 21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역별 피해 복구액은 피해금액이 가장 많았던 전남보다 경남이 더 많았다. 이 기간 경남의 피해복구액은 1조 1811억원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전남은 1조 1515억원(15.6%)이었으며, ▲경기 1조 1163억원(15.2%) ▲경북 8044억원(10.9%)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의 특성과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피해의 예방·대비가 필요하다"면서 "피해 발생 이후에 국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피해복구 모델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성 가사노동 가치 연간 1077만원...남성의 3.1배

연간 격차 730만원...여성이 전체 가치 75.5% 창출

여성 한 명이 1년간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남성이 담당하는 가사노동 가치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8일 공개한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무급가사노동가치 평가)' 보고서에 이에 기반을 둔 통계청의 분석 등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연간 무급가사노동의 가치는 여성이 1인당 1076만9000원, 남성이 1인당 346만9000원이었다.

여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가치가 1인 평균을 기준으로 남성의 약 3.1배에 달하는 셈이다.

남녀 1인당 연간 가사노동 가치는 1999년 남성 124만2000원·여성 500만3000원, 2004년 남성 190만8000원·여성 649만7000원, 2009년 남성 257만3000원·여성 843만2000원의 분포를 보였다. 1999년에는 여성 1명의 연간 가사노동 가치가 남성 1명의 약 4배였는데 2014년에는 3.1배로 변동했다.

1인당 연간 가사노동 가치의 성별 격차

는 같은 기간 376만1000원에서 730만원으로 확대됐다. 성별 구분 없이 계산하면 연간 가사노동 가치의 1인 평균은 710만 8000원이었다.

가사노동 가치를 산출하는 조사 대상은 만 15세 이상 일반 가구원이다. 다만 1인당 가사노동의 가치는 전체 가사노동 가치를 일반 가구원 수가 아닌 총인구로 나눠 산출한다. 성별 1인당 가사노동 가치는 해당 성의 전체 가사노동 가치를 해당 성의 총인구로 나눠서 계산한다.

여성 전체가 2014년 1년간 수행한 무급가사노동의 가치는 272조4650억원으로 같은 해 남성 전체의 가사노동 가치(88조 2650억원)의 3배를 웃돌았다.

여성 가사노동의 가치는 1999년 115조 8530억원, 2004년 155조1050억원, 2009년 206조876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남성의 가사노동 가치는 29조1420억원, 46조1970억원, 63조7440억원으로 변동했다.

/연합뉴스

'구례 쌍산재' 전남도 민간정원 등록

전남도는 '구례 쌍산재' (사진)를 제5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

쌍산재는 지리산 형제봉을 배경으로 섬진강이 감아도는 구례 마산 사도리 상사마을 초입에 위치해 있다. 전형적 배산임수 고택의 전통정원 형태다.

해주 오씨 고택으로 현재 운영자인 오경영 씨 고조부의 호 '쌍산'을 빌렸다. '쌍산'은 고조부와 친분이 두터웠던 마을 주민이 이사하자 두 가문이 영원히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고, 두 개의 산처럼 세상에 덕을 쌓으며 살자는 의미로 지었다고 한다.

정문을 들어서면 은은한 음악 선율을 들을 수 있다. 안채, 사랑채, 건넌채 등 아담한 한옥 건물을 수목과 돌담이 자연스레 연결하고 있다. 각 건물마다 지반 높이가 다르게 배치돼 흥미를 준다.

서당채와 경암당은 수목과 초본, 연못 등 한국 전통정원의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이 운치를 더한다. 동백나무·모란·산수유·배롱나무·보리수나무 등 65종의 수목과 작약 등 약초식물 등 초본류가 어우러져 거부감 없는 지리산 자연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경암당 옆 영벽문은 쌍산재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단헌 영벽문을 밟고 나가면 저수지와 지리산 풍광이 펼쳐져 감탄을 자아낸다.

정원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정원 등록 심사위원들은 "쌍산재는 한국 전통정원의 아름다운 유형으로, 전남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남도 등록 민간정원은 고흥 힐링파크 쑥쑥쑥(1호), 담양 죽화경(2호), 보성 초암정원(3호), 고흥 금세기정원(4호) 등이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노벨 경제학상에 윌리엄 노드하우스·폴 로머 교수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영예는 미국의 윌리엄 노드하우스(77·왼쪽) 예일대 교수와 폴 로머(62) 뉴욕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8일 (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제50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에 윌리엄 노드하우스 교수와 폴 로머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 답하는 방법을 고안했다"며 "그들의 공헌은 기술 혁신과 기후 변화의 원인, 결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윌리엄 노드 하우스 교수는 기후변화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한 공로를 인

정받았으며, 폴로머 교수는 내생적 성장 이론을 도입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번 노벨경제학상은 기후 변화, 기술 혁신을 거시경제적 관점으로 풀어나간 부분에 주목했다.

한편 수상자에게는 노벨상 메달과 증서, 900만 스웨덴 크로나(SEK)(약 11억2000여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임야
지분물건/문중산 환영
바로합니다.010-3605-5000

투자자 모집
경/공매 입찰/낙찰물건
근저당/소유권이전으로 법적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한마음 공인중개사

- 광산구 송정동 아파트상가2층 34평형(학원적합) 매매가 7천만원
- 동구 계림동 빌라 35평형 5층중4층 현임대중 전세8000만원 포함 19년1월만료 매매가1억3천만원
- 남구 백운동 2층상가주택 99㎡ 보증금 3천만원 월40만원 매매가 1억8천만원
- 북구 북동 4층상가주택 대지 98㎡ 보증금1300만 월85만원 안집제의 매가 3억7천만원
- 남구 월산동 3층상가주택 230㎡ 보증금 1억2천만원 월85만원 매매가 4억5천만원
- 동구 산수동 4층상가주택 대지 132㎡ 보증금3300만 월155만원 안집제의 매매가 5억5천만원
- 동구 두암동 3층상가건물 240㎡ 보증금 3천만원 월220만원 매매가 6억원
- 북구 신안동 5층상가건물 146㎡ 보증금 5천만원 월282만원 매매가 7억원
- 북구 운암동 4층상가주택 145㎡ 보7천만원 월260만원 매매가 8억원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270㎡ 보증금 5천만원 월310만원 매매가 8억5천만원
- 남구 백운동 3층상가주택 210㎡ 보증금 1억원 월500만원 매매가 14억원
- 북구 신안동 대지 520㎡ 매매가 14억5천만원
- 남구 주월동 5층상가주택 대지500㎡ 보증금2억 월920만원 안집제의 매가28억원
- 북구 운암동 대지2600㎡ 보9천만원 월500만원 매매가 44억원
- 해남 사찰맞남골묘 1300기 토지3600㎡ 매매가 8억5천만원

☎ 010-2314-8567 (계림오거리)

펜션·가든 부지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내 아이의 미래를 바꿀 교육
글로벌 에듀센터

순천 최대규모의 교육시설과 함께하실
사업자 분들을 초청 합니다!!

글로벌 에듀센터는
국제학교 개념으로 설립되는
대형 융복합 학원 교육시설입니다.

문의 : 02-502-8898 | 서울본사

▶ 권리가 없이 시세로 임대 100%전세도 환영

임대가 평균 600만원(전세가능)

1층 입점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문구점, 악곡, 편의점, 안경점 등
2층, 3층 Kids Cafe, 영어도서관, 스피치학원, 입시상담, 심리상담(치료), 유학컨설팅, 과학, 레고, 로봇 등

성심부동산 010-6665-7355 대표 김종호